

HI Economy

2라운드 접어든 무역전쟁

■ 중국을 정조준한 미 트럼프발 무역전쟁 리스크 부각

미국의 대중 통상압박에 대해 중국측은 아직 구체적인 보복 조치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중국내 여론은 미국측 통상압박에 대해 강경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G2의 무역전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 미-중 무역전쟁이 전면적으로 갈 것인가 ?

만약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등으로 미-중간 무역전쟁이 본격화된다면 양국 경제는 물론 글로벌 경제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무역수지 적자규모를 1,000억 달러 축소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미국측도 중국측이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가시적 노력과 더불어 미국산 제품에 대한 대규모 구매를 유도하는 협상의 지렛대로 통상압박을 활용할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된다면 미-중 모두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점에서 갈등 확산 리스크도 있지만 협상을 통한 해결 방안도 잠재해 있다.

■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가 당분간 보호막 역할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된다면 국내 증시 등 금융시장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겠지만 그나마 국내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는 국내 증시에 중요한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한편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 따른 국내 CDS 하락,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압력 확대와 이에 따른 4월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경계감 등으로 원화는 강세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Chief Economist**박상현**

(2122-9196)

shpark@hi-ib.com

Economist**진용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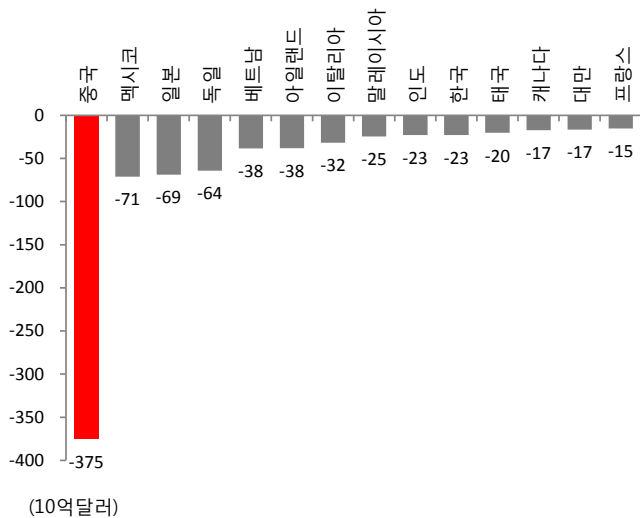
(2122-9206)

yj@hi-ib.com

중국을 정조준한 미 트럼프발 무역전쟁 리스크 부각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인상으로 무역전쟁에 들어간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중국을 정조준한 무역전쟁을 본격화할 태세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스마트폰, 가전제품, 통신장비 등에 약 600억달러대 관세를 부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밖에도 투자 제한이나 여행객 비자 제한 등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림 1> 미국의 주요 무역수지 적자국가와 규모(17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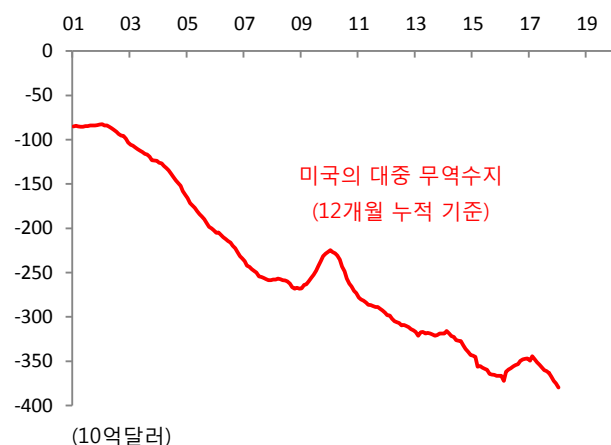


이러한 분위기를 확인시켜 주듯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중국의 대미 흑자를 약 1,000억 달러 축소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중이며 이를 곧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2017년 미국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약 3,750억 달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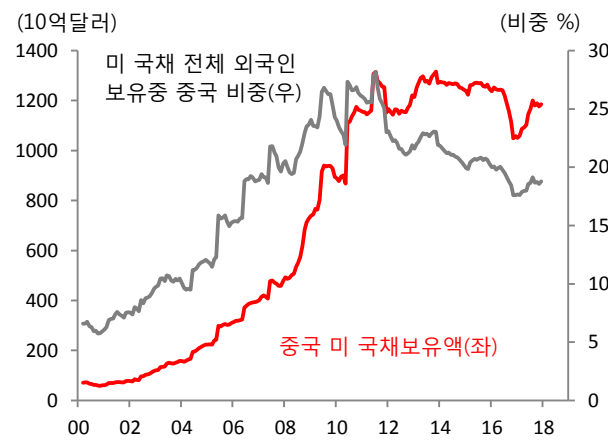
미국의 대중 통상압박에 대해 중국측은 아직 구체적인 보복 조치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중국내 여론은 미국측 통상압박에 대해 강경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G2의 무역전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미국의 통상압박에 대한 보복 카드로 내 놓을 수 있는 조치로 골드만삭스는 5가지 정도, 구체적으로 1) 미국 농산물에 대한 무역 보복, 2)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3) 위안화 평가절하, 4) 국채 등 미국 자산매각, 5) 북한 등 지정학적 문제에 대한 입장 전환이다. 그러나 거론되고 있는 보복 방안들이 미국측의 통상압박을 약화시킬만한 카드라고는 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국채 등 미국 자산매각이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중국의 미 국채 매각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산될 경우 중국 역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사용하기는 어려운 카드라 판단된다.

<그림 2>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



<그림 3> 중국, 보유 미 국채 매각이 통상압박의 대응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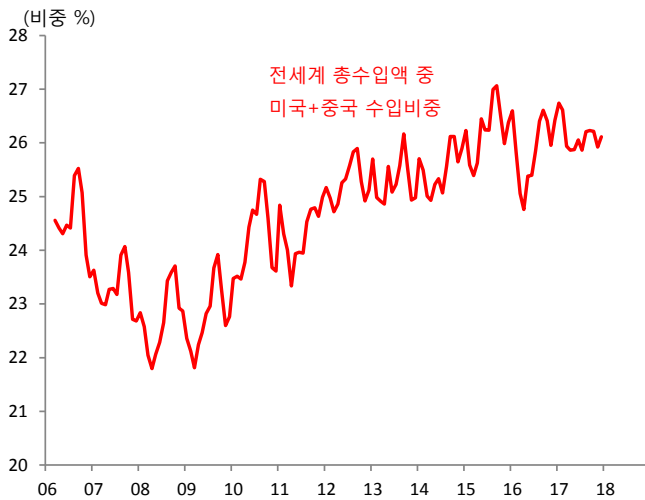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CEIC, 하이투자증권

미-중 무역전쟁이 전면적으로 갈 것인가 ?

만약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등으로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 된다면 양국 경제는 물론 글로벌 경제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 수입이 전세계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5%와 11%로 전세계 수입의 1/4 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미-중 무역전쟁으로 수출입 흐름이 둔화된다면 연쇄적으로 글로벌 교역 흐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그림 4> 전세계 수입에서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1/4 수준을 상회하고 있음



우선, 중국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보복조치가 IT 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대미 수출에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림5>에서 보듯 미국의 대중 수입품목 중 컴퓨터 및 통신장비 등 IT제품의 주요 수입품목을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측이 중국 자본의 대미 투자를 규제할 경우 4차 산업을 중심으로 신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는 중국의 성장전략에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역시 대중국 수입제품 관세인상시 득(=무역수지 적자 개선)있겠지만 실(수입물가 상승, 국채금리 상승)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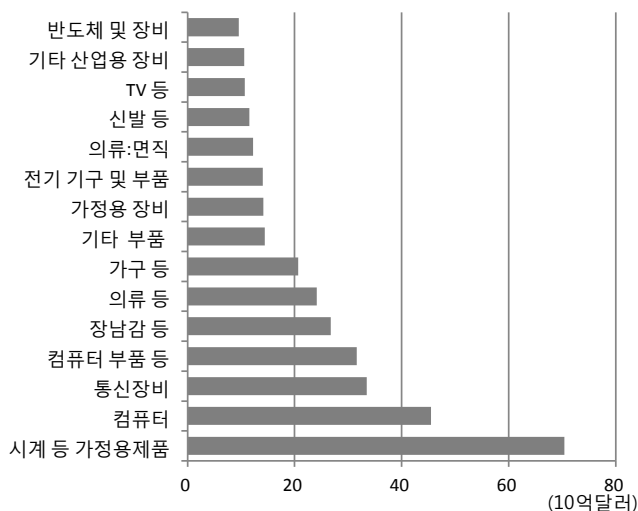
미국 전체 수입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초반 수준이다. 대중 수입제품에 수입관세를 인상할 경우 수입 단가 상승에 따른 소비 둔화와 수입물가 상승은 불가피하다. 가뜰이나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철강 관세 인상에 이은 일부 대중국 수입제품에 대한 관세인상은 인플레이션 기대감을 더욱 자극할 수 있고 단가 상승에 구매력 저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측이 보유 미 국채 매각을 실행에 옮길 경우 국채 금리상승에 따라 금융시장 발작이 재연될 수 있음도 미국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이 밖에도 중국측이 미국산 항공기 구매 중단 등 미-중 무역 갈등시 마다 중국이 당근으로 제시한 미국산 제품의 대규모 구매를 중단할 수 있음도 미국 기업에게는 악재일 것이다.

어찌보면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된다면 미-중 모두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을 수 있다.

<그림 5> 미국의 중국산 주요 수입품목



자료: WTO, Bloomberg, CEC, 하이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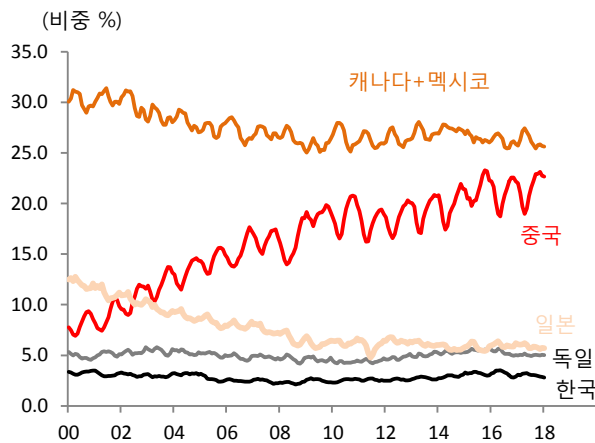
미-중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도 미-중 무역전쟁 본격화시 유탄을 맞을 공산이 높다. 특히 한국의 경우 Value chain상 중국의 IT제품의 대미 수출 타격시 간접적 피해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금년들어 대중국 반도체 수출증가율이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대중 수출은 물론 국내 전체 수출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심은 미-중 무역전쟁 본격화 여부인데 최근 트럼프 행정부 정책기조와 11월 미 의회 중간선거를 감안할 때 일단 실행에 옮길 가능성을 높다. 다만, 미국의 대중국 통상압박 지속 여부는 중국측의 대응에 달려 있다는 생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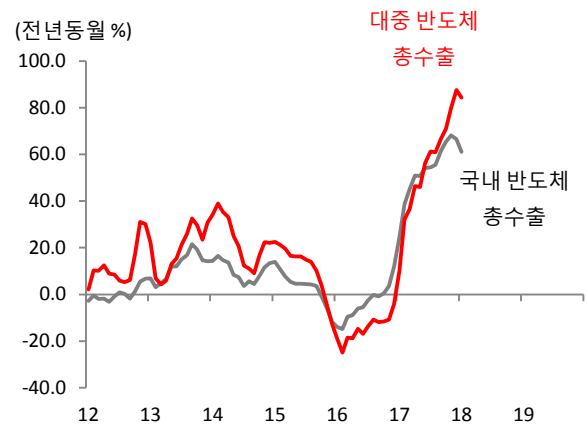
중국측이 미국 관세인상에 강경한 보복 조치를 실행할 경우에는 미-중 무역전쟁이 확산내지 장기화될 여지가 있다. 반면, 중국측이 대미 무역수지 흑자폭 축소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에 새로운 당근책을 제시하거나 협상을 통한 무역전쟁 해소에 주력한다면 미-중 무역전쟁은 단기간 악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무역수지 적자규모를 1,000억 달러 축소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미국측도 중국측이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가시적 노력과 더불어 미국산 제품에 대한 대규모 구매를 유도하는 협상의 지렛대로 통상압박을 활용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림 6> 미국의 국가별 수입 비중



<그림 7> 한국의 반도체 수출과 대중국 반도체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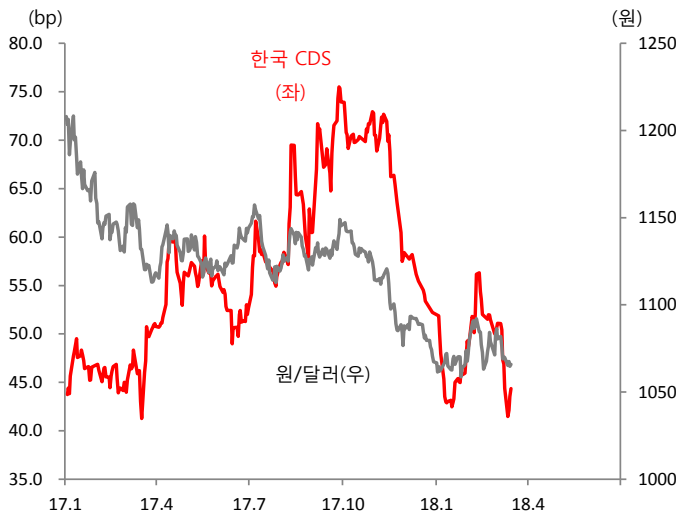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CEIC, 무역협회, 하이투자증권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가 당분간 보호막 역할

미-중 무역전쟁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 국내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는 국내 증시에 중요한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물론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된다면 국내 증시 등 금융시장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림 8> 북한 리스크 완화로 국내 CDS 큰 폭 하락



자료: Bloomberg, 하이투자증권

다만, 북미 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미국측이 상대적으로 한국에 대한 통상압박에 대해서는 수위조절에 나설 수 있고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이후 국내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기대감은 당분간 국내 증시에 우호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글로벌 무역전쟁 우려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자금이 국내시장에 크게 이탈하지 않고 오히려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고 있음이 최근 분위기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따라서, 미-중 무역전쟁이 진정한 의미에서 확산되지 않는다면 트럼프발 통상 리스크는 당분간 국내 증시에 제한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원화는 강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 따른 국내 CDS 하락,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압력 확대와 이에 따른 4월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경계감 등으로 원화 절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최근 국내 경제 펀더멘탈 둔화와 당국의 소극적인 스무딩오퍼레이션 등을 고려할 때 원/달러 환율 낙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Compliance notice

-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박상현, 진용재)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